

2014년 기준

경상북도 및 영양군 사회조사 결과



경상북도



영양군

2014년 기준 경상북도 및 영양군 사회조사 결과

2014년 경상북도 및 영양군 사회조사('14. 9월 실시) 결과를 보고함
* 가구와 가족, 교육, 노동, 안전, 환경, 문화와 여가 등 6개 부문에 대해 실시

1 조사 개요

■ 조사시점 및 기간

- 조사시점 : '14. 9. 15. 0시
- 조사기간 : '14. 9. 15 ~ 9. 26(12일간)

■ 조사대상

- 대상가구 : 관내 6개 읍·면 15개 표본조사구의 300가구
- 응답대상 : 가구주 및 가구내 만15세 이상 쉰 가구원

■ 조사항목(총 44개 항목)

- 공통항목 : 월평균 생활비 등 40문항
- 영양군 자율항목 : 군민 희망사항 반영도 등 4문항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하는 타계식 조사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조사표를 사전 배부하는 자계식 병행

■ 동원인력(총 10명)

- 조사요원 : 8명(조사원 7명, 조사관리자 1명)
- 입력요원 : 1명
- 공무원 : 1명(군 1명)

■ 소요예산 : 5,552천원(도비: 3,887천원, 군비: 1,665천원)

2

조사결과 요약

가구와 가족

도내 가구 중 분거가족비율은 31%로 직장으로 인한 분거가족이 많음

● 분거가족과 분거이유	<2013>		<2014>
▶ 분거가족 비율	30.1%	→	30.7%
▶ 직장으로 인한 분거	49.3%	→	47.0%
▶ 학업으로 인한 분거	39.0%	→	41.4%
● 선호하는 가족형태	<남자>	v.s.	<여자>
▶ 부모님과 함께	29.0%		26.1%
▶ 1인가구	4.6%		21.1%
▶ 유자녀 부부	41.4%		43.7%
● 부모님과 함께 하는 가족형태 선호사유	<29세이하>	v.s.	<60세이상>
▶ 부모님에 대한 당연한 의무	39.7%		62.9%
▶ 생활비 절약등 경제적 도움	21.9%		7.7%

교육

대학생이 있는 가구는 11%, 비문해자수는 11만명, 비문해자 비율은 4.6%

● 대학교 등록금 마련방법	<2013>		<2014>
▶ 대학생이 있는 가구비율	12.1%	→	11.4%
▶ 대학교 등록금 마련방법(부모 도움)	54.4%	→	49.1%
▶ 대학교 등록금 마련방법(대출)	19.5%	→	13.3%
● 문해율(文解率)	<2013>		<2014>
▶ 비문해자수	114천명	→	108천명
▶ 비문해자 비율	4.9%	→	4.6%

노동

전년대비 근로자 직업안정성은 높아졌으나 지역경제·일자리상황 인식은 나빠짐

● 임금근로자의 직업안정	<2013>		<2014>
▶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 할 수 있다는 근로자 비율	81.7%	→	92.1%
▶ 현재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1년이하)	11.3%	→	5.6%
▶ 현재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5년이상)	59.0%	→	70.0%
● 지역경제 및 일자리상황에 대한 인식	<2013>		<2014>
▶ 지역 경제(나아질 것이다)	42.9%	→	31.8%
▶ 지역 일자리(나아질 것이다)	40.1%	→	31.4%
● 직업만족도	<2013>		<2014>
▶ 하는 일	38.5%	→	47.4%
▶ 임금	24.8%	→	34.5%
▶ 장래성	27.1%	→	37.0%

※ 연도비교가 없는 통계는 2014년 결과자료

■ 환경

주민 거주지역의 대기, 수질 등에 대한 현재 환경체감도는 전년에 비해 떨어짐

● 환경체감도('좋다' 의 비율)	<2013>		<2014>
▶ 대기의 질	60.7%	→	56.4%
▶ 강, 하천, 호수의 질	51.3%	→	49.6%
▶ 토양의 질	48.2%	→	44.6%
▶ 소음, 진동	44.0%	→	43.1%
▶ 녹지 환경	65.2%	→	52.2%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노력한다	v.s.	노력않는다
▶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52.1%		18.2%
▶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72.4%		4.4%
▶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	68.9%		5.2%
▶ 합성세제 사용을 줄임	55.8%		8.3%
▶ 일회용품 사용자제	55.0%		9.4%
▶ 에너지절약형 제품구입	59.1%		10.7%
▶ 환경, 자연보호운동 참여	27.7%		39.3%

■ 안전

우리사회의 전반적 안전상태에 대해 위험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음

● 우리사회의 안전상태 변화	안전하다	v.s.	위험하다
▶ 2년전과 비교	25.2%		33.7%
▶ 2년후 예상	30.0%		25.5%
● 분야별 사회안전 상태	안전하다	v.s.	위험하다
▶ 전반적 사회안전	18.3%		24.9%
▶ 국가안보	25.9%		34.5%
▶ 자연재해	24.5%		29.4%
▶ 정보보안	12.7%		45.8%
▶ 신종전염병	11.2%		52.6%
● 야간 보행 안전도	남자	v.s.	여자
▶ 야간보행에 두려운 곳이 있다	24.5%		24.1%
● 자신의 준법수준	남자	v.s.	여자
▶ 잘지킨다.	76.1%		72.7%
● 우리 국민들의 공공질서수준	노력한다	v.s.	노력 않는다
▶ 차레지키기	58.3%		7.5%
▶ 거리환경질서	43.3%		20.9%
▶ 보행질서	43.9%		13.7%
▶ 운전자 교통질서	40.2%		14.6%
▶ 공공장소 금연	42.4%		19.4%
▶ 공공장소 정숙	36.5%		22.9%

● 교통이용 수단	<2013>		<2014>
▶ 승용/승합차	30.8%	→	26.4%
▶ 자전거	3.4%	→	4.3%
● 교통안전시설 만족도	<만족한다>	v.s.	<만족않음>
▶ 만족비율	31.7%		11.7
● 국가기관 법집행에 대한 신뢰도	<2013>		<2014>
▶ 행정기관	36.4%	→	36.0%
▶ 사법기관	33.6%	→	32.7%
●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불안하지않음>	v.s.	<불안하다>
▶ 국내산	45.2%		14.1%
▶ 수입산	11.6%		52.5%
●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	<불안하지않음>	v.s.	<불안하다>
▶ 친환경(유기농)식품	55.1%		7.7%
▶ 국내산 농수축산물	50.6%		8.6%
▶ 수입산 농수축산물	8.6%		54.2%
▶ 가공식품	8.6%		50.6%
▶ 유전자 변형식품(GMO)	6.0%		64.2%

■ 문화와 여가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인구비율은 43% ; 세대간 인터넷 활용 격차가 큼

● 문화예술행사 관람인구 비율	<남자>	v.s.	<여자>
▶ 문화예술행사	45.9%		31.4%
▶ 음악,연주회	8.7%		6.3%
▶ 영화	40.5%		27.7%
▶ 박물관	9.7%		5.1%
● 문화예술행사 정보입수경로	<29세이하>	v.s.	<60세이상>
▶ TV	12.3%		25.3%
▶ 인터넷	65.5%		9.8%
▶ 입소문	15.2%		36.3%
● 문화예술행사 만족도	<29세이하>	v.s.	<60세이상>
▶ 참여후 만족도	64.4%		72.7%
● 문화예술시설	<남>	v.s.	<여>
▶ 시설 만족도	25.0%		24.9%
● 여행경험자 비율	<남>	v.s.	<여>
▶ 국내여행	49.7%		35.6%
▶ 해외여행	10.6%		6.0%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남>	v.s.	<여>
▶ 여행	24.3%		20.5%
▶ 휴식	11.1%		14.1%
▶ 사교관련	9.7%		11.8%
▶ 문화예술관람	8.1%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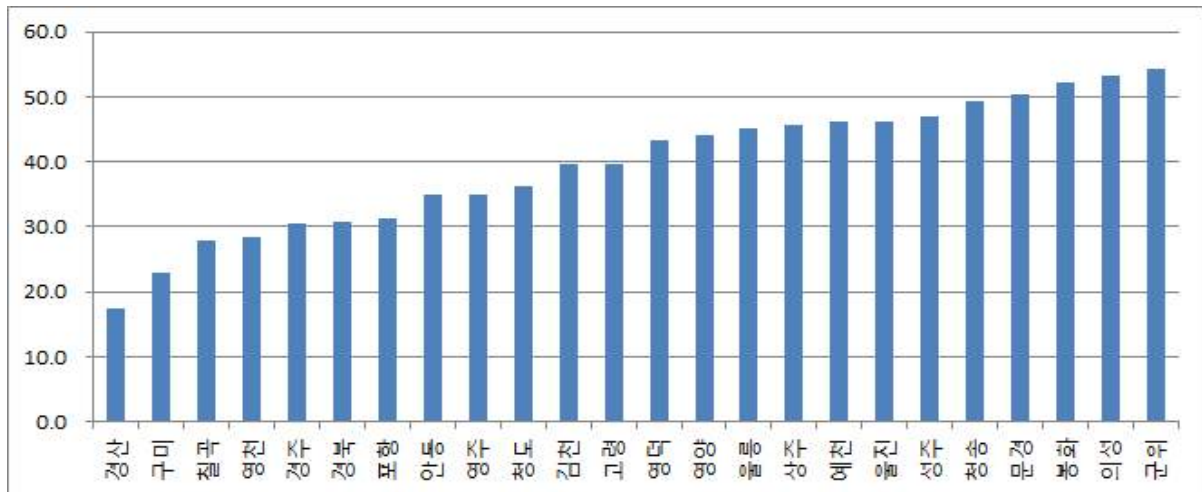
● 인터넷 활용	<29세이하>	v.s.	<60세이상>
▶ 인터넷 뱅킹, 폰 뱅킹 서비스 이용	50.9%		4.7%
▶ 문자 메시지 이용율	93.1%		18.8%
▶ 이메일 보유율	90.7%		5.7%
▶ 홈페이지 보유율	52.7%		2.5%
▶ 인터넷 동호회 가입율	26.6%		1.6%
▶ SNS 사용율	88.8%		6.8%
●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용	<2013>		<2014>
▶ 3만원 미만 가구비율	20.8%	→	26.0%
▶ 20만원 이상 가구비율	16.7%	→	17.0%
● 전자상거래	<29세이하>	v.s.	<60세이상>
▶ TV 홈쇼핑	29.2		5.2
▶ 증권거래	3.3		0.8
▶ 상품구매	54.2		4.0
▶ 예약 및 예매	41.6		1.8

I. 가족

1. 분거가족과 분거이유(60세미만)-가구주

도내 분거가족의 비율은 30.7%, 분거이유는 「직장」이 47.0%로 가장 높음

- 가구주 연령이 60세미만인 가구에서 직장, 학업 관계로 가구원이 타지에 살고 있는 「분거가족」 비율은 30.7%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여성 가구주의 분거비율이 36.3%로 남성보다 6.8%p. 높음
 - 연령별로는 50~59세가 5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분거이유」는 '직장'이 47.0%로 가장 높았고, '학업' 41.4%, '군대' 6.4%의 순
 - '직장'으로 인한 가족분거시 여성가구주가 66.4%로 남성가구주 42.1%보다 높음



【시군별 분거가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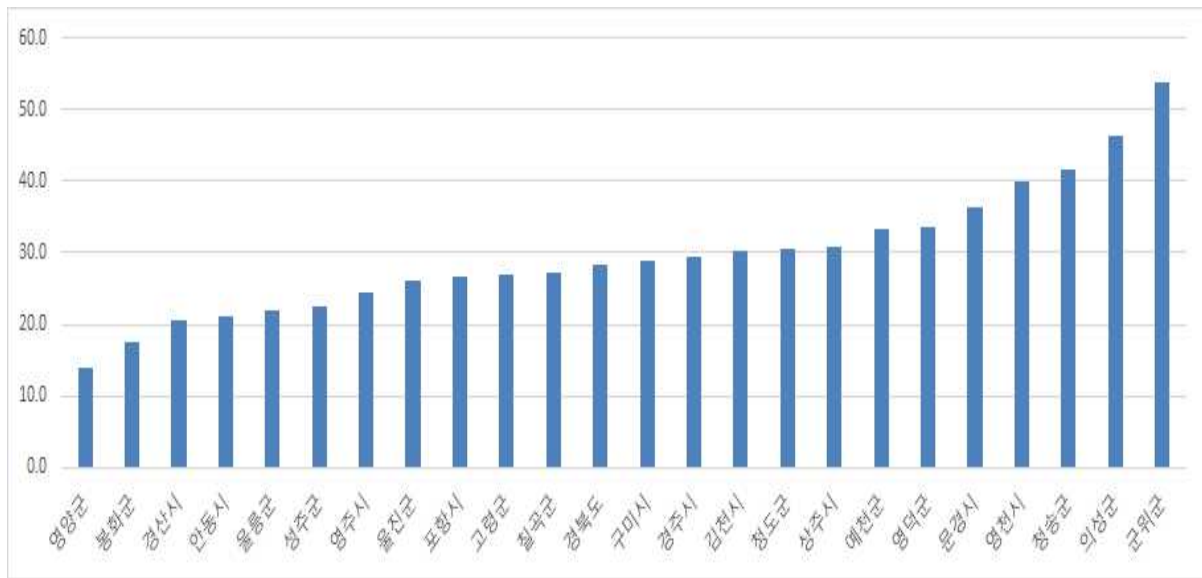
(단위 : %)

	분거가족 비율	분거이유						
		직장	학업	가족간 불화	건강상 이유	자녀 교육지원	군대	기타
2013	30.1	49.3	39.0	1.2	0.9	1.6	6.5	1.4
2014	30.7	47.0	41.4	1.3	0.6	2.2	6.4	1.0
남	29.5	42.1	45.6	1.3	0.6	2.7	6.6	1.0
여	36.3	66.4	24.6	1.7	0.3	0.4	5.4	1.2

2. 선호하는 가족형태-가구주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유자녀 부부」 49.3%, 「1인가구(독신)」는 9.2%

- 도민들이 선호하는 가장 선호하는 가족형태는 「유자녀 부부」로 전체의 49.3%를 차지하였고, 이어 「부모님과 함께 유자녀 부부」 25.5%의 순으로 나타남
 - 「1인가구(독신)」 선호비율은 9.2%를 차지하였고 성별로 남자는 4.6%인데 비해 여자는 21.1%로 여자가 「1인가구(독신)」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유자녀 부부」 선호도는 30~39세가 69.8%로 가장 높고 60세이상은 38.7%로 연령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29세이하 63.1%, 30~39세 69.8%, 40~49세 62.3%, 50~59세 50.4%, 60세이상 38.7%



【선호하는 가족형태: 부모와 함께】

(단위 : %)

구분	부모님과 함께			1인가구 (독신)	무자녀부부	유자녀부부	기타
	독신	무자녀부부	유자녀부부				
2014	1.3	1.4	25.5	9.2	13.2	49.3	0.1
남	1.2	1.5	26.3	4.6	14.8	51.4	0.1
여	1.5	1.1	23.5	21.1	8.9	43.7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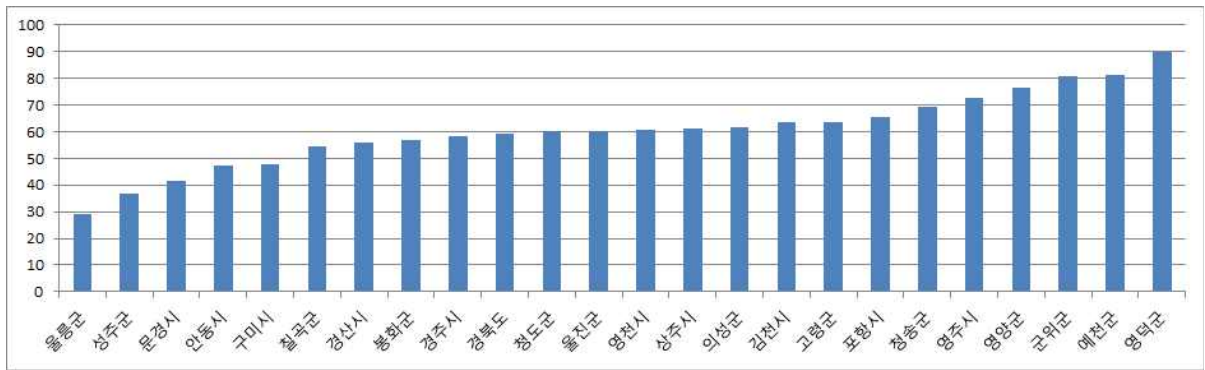
3. 부모님과 같이 사는 가족형태를 선호하는 이유-가구주

부모님과 같이 사는 가족을 선호하는 이유는 '부모님에 대한 당연한 의무'

□ 부모님과 같이 사는 가족형태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부모님에 대한 당연한 의무」 59.4%로 가장 높고 이어 「가족간의 화합용이」 20.7%, 「생활비 절약 등 경제적 도움」 8.2%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선호사유

- 「부모에 대한 당연한 의무」 : 60세이상이 62.9%로 가장 높음
- 「자녀 양육문제 해결」 : 30~39세가 12.2%로 가장 높음
- 「자녀의 교육효과 증진」 : 전 연령대별로 고른 분포를 보임
- 「생활비 절약 등 경제적 도움」 : 29세이하가 21.9%로 가장 높음
- 「가족간의 화합용이」 : 전 연령대별로 고른 분포를 보임



【선호하는 가족형태: 부모와 함께】

(단위 : %)

	부모에 대한 당연한 의무	자녀양육 문제해결	자녀의 교육효과증진	생활비 절약 등 경제적 도움	가족간의 화합 용이	기타
2014	59.4	5.6	5.5	8.2	20.7	0.7
남	60.4	5.8	5.7	7.5	20.3	0.4
여	56.4	4.9	4.7	10.3	22.0	1.7
(연령별)						
29세이하	39.7	8.5	5.5	21.9	23.1	1.2
30-39세	49.5	12.2	6.4	6.8	23.4	1.8
40-49세	55.1	7.3	8.0	7.5	21.9	0.2
50-59세	58.7	5.4	6.2	8.8	20.3	0.6
60세이상	62.9	4.2	4.4	7.7	20.2	0.7

II. 교 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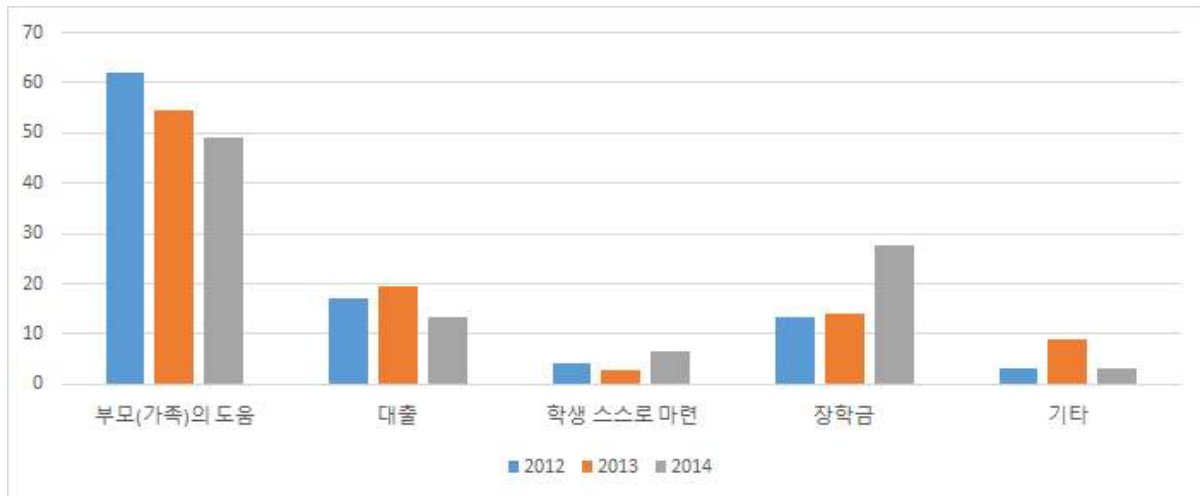
4. 대학교 등록금 마련방법-가구주

대학교 등록금 마련방법은 「부모(가족)의 도움」 49.1%, 「장학금」 27.8%의 순

□ 가구내 대학생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11.4%로 3년간 감소 추세

○ 2012년 12.6% → 2013년 12.1% → 2014년 11.4%

□ 대학교 등록금 마련방법은 「부모(가족)의 도움」이 49.1%로 가장 많고 이어 「장학금」 27.8%, 「대출」 13.3%의 순으로 나타남



【등록금 마련방법 :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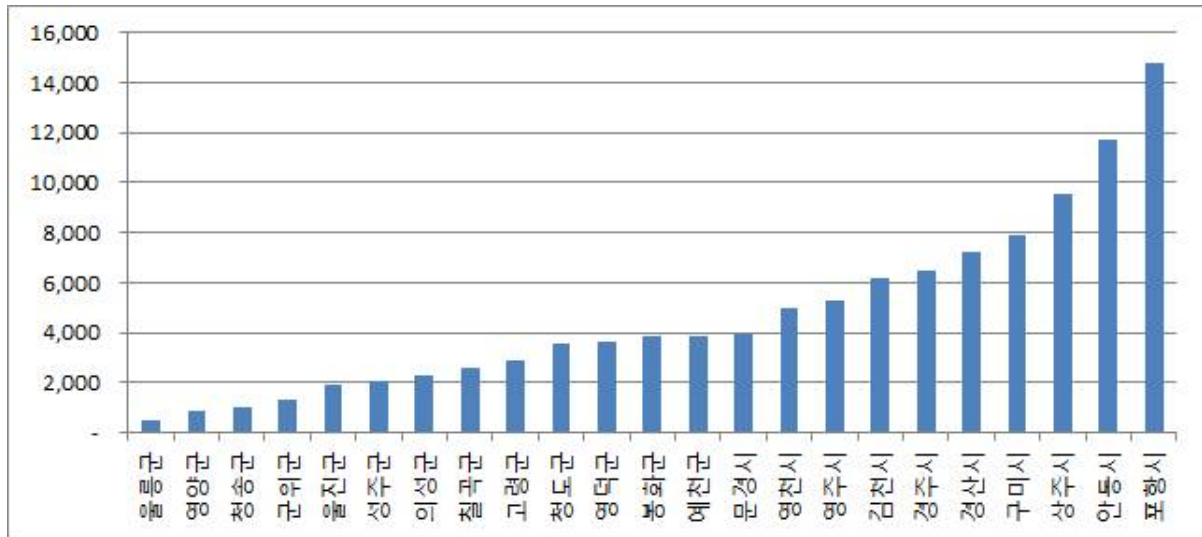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가구내 대학생 유무	대학교 등록금 마련방법				
		부모(가족)의 도움	대출	학생 스스로 마련	장학금	기타
2012	12.6	62.1	17.2	4.1	13.4	3.3
2013	12.1	54.4	19.5	2.7	14.2	9.1
2014	11.4	49.1	13.3	6.7	27.8	3.1

5. 문해율 - 가구주

도내 비문해자수는 108천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4.5% 차지

- 도내 15세이상 인구 중에서 중졸미만이면서 한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비문해자 수는 108천명으로 전년 114천명에 비해 5% 감소함
- 비문해자 비율은 도 전체 240만명 중에서 약 4.5%를 차지함



【 시군별 비문해자수 】

(단위 : %)

구분	비문해자수	15세이상 인구	비문해자 비율
2011	147,132	2,316,733	6.4
2012	121,380	2,327,163	5.2
2013	113,787	2,338,741	4.9
2014	108,209	2,397,024	4.6

III. 노동

6. 임금근로자의 직업안정

「큰 잘못이 없는 한 현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근로자는 92.1%

- 도내 전체 근로자 중에서 「큰 잘못이 없는 한 현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근로자는 92.1%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 92.6%, 여자 89.0%로 성별로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직장에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이 70.2%로 가장 높고 이어 2년이상 5년미만 16.5%, 1년초과 2년미만 7.7%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5년이상 근무할 수 있다」는 비율은 남자 72.2%, 여자 57.8%로 남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큰 잘못이 없는 한 현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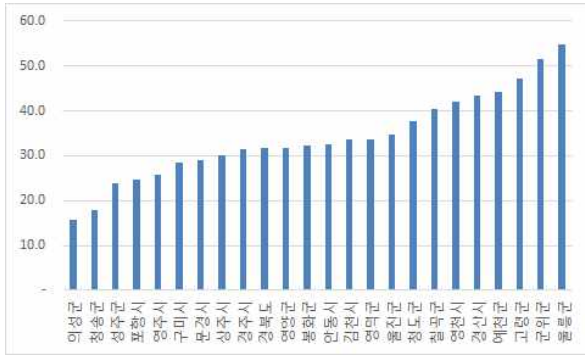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큰 잘못이 없는 한 현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	현재 직장에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는가?			
		1년이하	1년초과~2년미만	2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2013	81.7	11.3	12.8	16.9	59.0
2014	92.1	5.6	7.7	16.5	70.2
남	92.6	4.9	7.0	15.9	72.2
여	89.0	9.8	11.9	20.5	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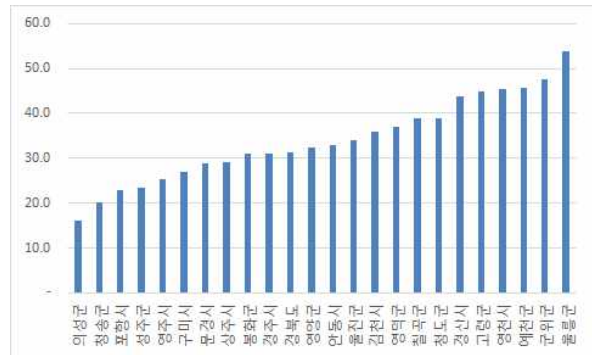
7. 지역경제 및 일자리상황에 대한 인식

향후 5년내 지역경제 및 일자리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년 대비 비관적으로 바뀔

-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경제상황이 향후 5년내에 나아질 것이다」는 비율은 31.8%로 전년 42.9%에 비해 11.1%p. 감소함
 - 「나빠질 것이다」는 비율은 11.3%로 전년대비 3.9%p. 증가하여 지역경제 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상황이 향후 5년내에 나아질 것이다」는 비율은 40.1%로 전년 31.4%에 비해 △8.7%p. 감소함
 - 「나빠질 것이다」는 비율은 12.8%로 전년 8.5%에 비해 4.3%p. 증가하여 지역 고용상황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경제에 대한 인식 】



【 지역 일자리 상황에 대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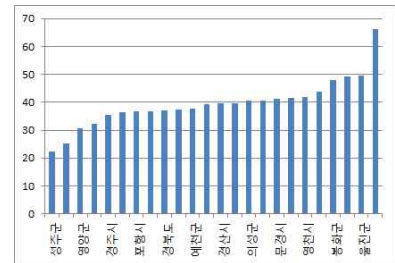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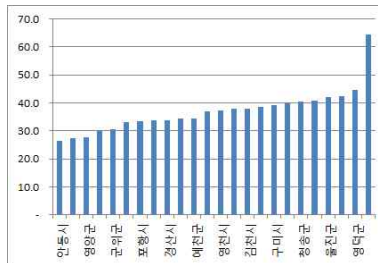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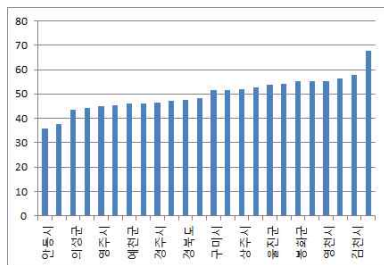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지역 경제			일자리 상황		
	나아질 것이다	변동 없을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변동 없을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2013	42.9	49.8	7.4	40.1	51.4	8.5
2014	31.8	56.8	11.3	31.4	55.8	12.8
남	31.6	56.5	12.0	31.0	55.6	13.5
여	33.0	58.5	8.5	33.4	56.8	9.8

8. 직업만족도

직업만족도 : ‘하는 일’ 47.5%, ‘임금’ 34.5%, ‘근로시간’ 34.5%

- ‘하는 일’에서 「만족한다」는 근로자의 비율은 47.4%로 전년 38.3%에 비해 8.9%p. 증가함
 - 성별로 남자는 48.3%, 여자는 41.9%가 하는 일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함
- ‘임금’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은 34.5%로 전년 24.8%에 비해 9.7%p. 증가함
 - 성별로 남자는 35.3%, 여자는 29.5%가 하는 일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함
- ‘근로시간’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은 34.5%로 전년 24.8%에 비해 9.7%p. 증가함
 - 교육정도별로 대졸이상은 51.5%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초졸이하는 22.4%만 만족한다고 응답
 - 교육정도별 「만족한다」 비율 : 초졸이하 22.4%, 중졸 25.0%, 고졸 34.4%, 대졸이상 51.5%



【하는 일】

【임금】

【장래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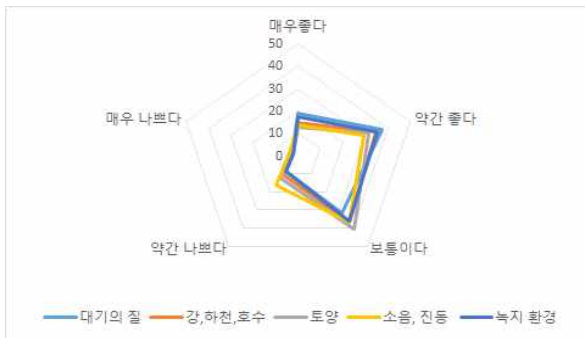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하는 일	2014년	8.9	38.5	42.3	9.5	0.9
	남자	9.1	39.2	41.9	9.0	0.8
	여자	7.5	34.4	44.5	12.3	1.3
임금	2014년	5.4	29.1	44.2	19.2	2.1
	남자	5.6	29.7	44.0	18.7	2.0
	여자	4.2	25.3	45.8	21.8	2.9
장래성	2014년	6.0	29.0	44.8	17.3	2.8
	남자	6.2	29.8	44.6	16.8	2.6
	여자	4.8	24.3	46.1	20.7	4.2
근로시간	2014년	6.4	30.6	45.2	15.5	2.3
	남자	6.7	31.3	44.8	15.0	2.3
	여자	4.8	26.6	47.1	18.6	2.9

IV. 환 경

9. 환경체감도

현재 환경상태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

- 현재 환경에 대해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에서 전년보다 나빠짐
 - 「대기의 질」은 '좋다'는 비율이 56.4%로 전년 60.7%에 비해 4.3%p. 감소함
 - 「강, 하천, 호수의 질」은 '좋다'는 비율이 49.6%로 전년 51.3%에 비해 0.7%p. 감소함
 - 「토양의 질」은 '좋다'는 비율이 44.6%로 전년 48.2%로 전년에 비해 3.6%p. 감소함
 - 「소음, 진동」은 '좋다'는 비율이 43.1%로 전년 44.0%에 비해 0.9%p. 감소함
 - 「녹지환경」은 '좋다'는 비율이 52.2%로 전년 65.2%에 비해 13.0%p. 감소함
- 2년전과 비교한 환경변화
 - 「대기의 질」은 '좋다'는 비율이 42.9%로 나타남
 - 「강, 하천, 호수의 질」은 '좋다'는 비율이 39.5%로 나타남
 - 「토양의 질」은 '좋다'는 비율이 35.2%로 나타남
 - 「소음, 진동」은 '좋다'는 비율이 33.8%로 나타남
 - 「녹지환경」은 '좋다'는 비율이 43.4%로 나타남



【현재 환경에 대한 견해】

【2년전과 비교한 환경변화】

(단위 : %)

	현재 환경에 대한 견해					2년전과 비교한 환경 변화				
	매우 좋다	약간 좋다	보통이 다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	매우 좋다	약간 좋다	보통이 다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
대기의 질	18.9	37.5	31.9	8.8	2.9	12.2	30.7	45.8	9.3	2.0
강, 하천, 호수	14.6	35.0	36.7	10.8	2.9	10.2	29.3	47.7	10.6	2.2
토양	12.8	31.8	40.7	12.2	2.5	9.2	26.0	50.4	12.2	2.1
소음, 진동	13.8	29.3	36.7	16.1	4.1	9.7	24.1	47.4	15.5	3.4
녹지 환경	17.1	35.1	36.5	8.8	2.5	12.8	30.6	46.5	8.1	1.9

10. 환경오염방지노력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나 환경·자연보호 운동에는 잘 참여하지 않음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52.1%
 - 연령별로는 29세이하가 63.6%로 가장 낮고 40~49세가 77.1%로 가장 높음
-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한다」는 비율은 72.4%로 남자(72.6%), 여자(71.5%)간 차이가 없음
-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는 비율은 68.9%로 대부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임
- 「합성세제 사용을 줄인다」는 비율은 55.8%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합성세제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 29세이하가 37.7%, 30~39세 50.0%, 40~49세가 57.7%, 50~59세 61.6%, 60세이상 59.4%
-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55.0%,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용자제를 노력하지 않음
-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구입한다」는 비율은 59.1%, 가구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구입비율이 높음
- 「환경 및 자연보호운동(활동)에 참여」에 '노력한다'는 비율은 27.7% '노력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9.2%로 나타남



【환경오염 방지노력】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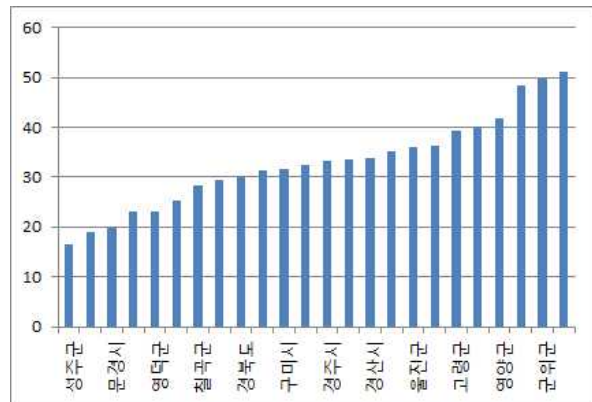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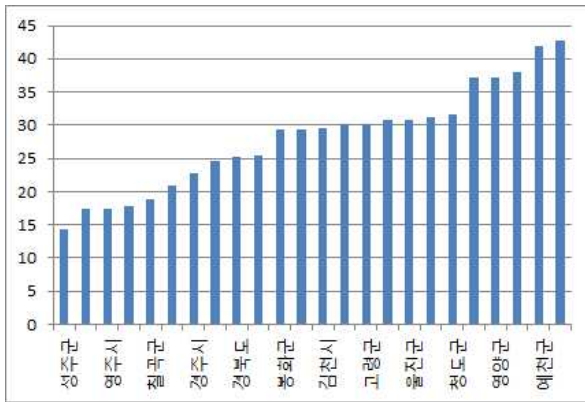
	매우 노력한다	약간 노력한다	보통이다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18.6	33.5	29.8	15.0	3.2
②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31.5	40.9	23.2	4.0	0.4
③ 음식물쓰레기를 줄임	28.3	40.6	25.9	4.7	0.5
④ 합성세제 사용을 줄임	18.8	37.0	35.9	7.5	0.8
⑤ 일회용품 사용 자제	19.8	35.2	35.7	8.6	0.8
⑥ 에너지절약형제품 구입	25.6	33.5	30.1	9.3	1.4
⑦ 환경,자연보호운동 참여	8.1	19.6	33.0	23.2	16.1

V. 안전

11. 우리사회의 안전상태 변화

2년전과 비교해서 우리사회의 안전상태는 위험해졌다는 비율이 높음

- 「2년전과 비교」 하여 우리사회의 안전상태는 ‘안전해졌다’는 비율은 25.2%인데 비해 ‘위험해졌다’는 비율은 33.7%로 위험해졌다는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위험해졌다’는 비율은 월평균 가구소득 ‘1백만원 미만’은 28.9%인데 비해 5백만원 이상은 37.5%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년후 예상」 은 안전해 질 것이라는 비율은 30%인데 비해 위험해 질 것이라는 비율은 25.5%로 향후 우리사회의 안전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남



【2년전과 비교한 안전하다 비율】

【2년후 예상 안전하다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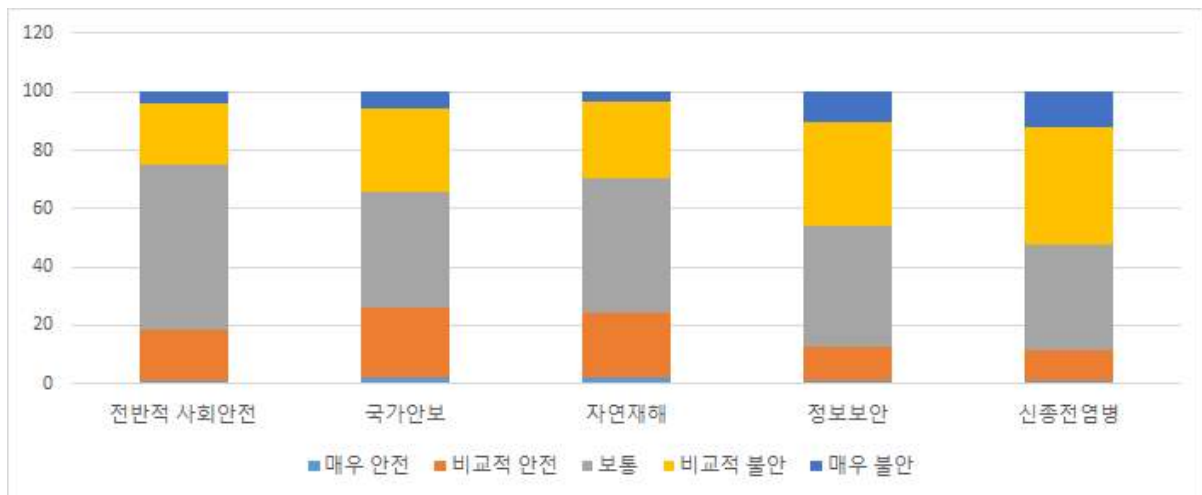
(단위 : %)

	2년전과 비교해 우리사회의 현재 안전상태					2년후 우리사회의 안전상태 예상				
	매우 안전	약간 안전	변화 없다	약간 위험	매우 위험	매우 안전	약간 안전	변화 없다	약간 위험	매우 위험
2014	2.6	22.6	41.0	28.7	5.0	3.4	26.6	44.3	21.0	4.5
남	2.5	22.6	41.1	28.7	5.1	3.4	26.6	44.4	21.0	4.6
여	3.1	22.7	40.5	28.9	4.7	3.7	26.8	44.1	21.2	4.1

12. 분야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전반적인 사회안전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18.3%는 ‘안전하다고 응답한 반면 24.9%는 ‘불안하다고 응답하여 우리나라의 안전상태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불안함을 느끼는 계층은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연령이 낮아지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불안하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는 「국가안보(전쟁가능성, 북핵문제)」에 대해 ‘안전하다’는 비율은 25.9%로 나타난 반면 ‘불안하다’는 비율은 34.5%로 나타남
 - 「자연재해」는 ‘안전하다’는 비율은 24.5%, ‘불안하다’는 비율은 29.4%
 - 「정보보안(컴퓨터 바이러스, 해킹등)」은 ‘안전하다’ 12.7%, ‘불안하다’ 45.8%
 - 「신종 전염병(신종바이러스, 조류독감 등)」은 ‘안전하다’ 11.2%, ‘불안하다’ 52.6%



【 분야별 사회안전 상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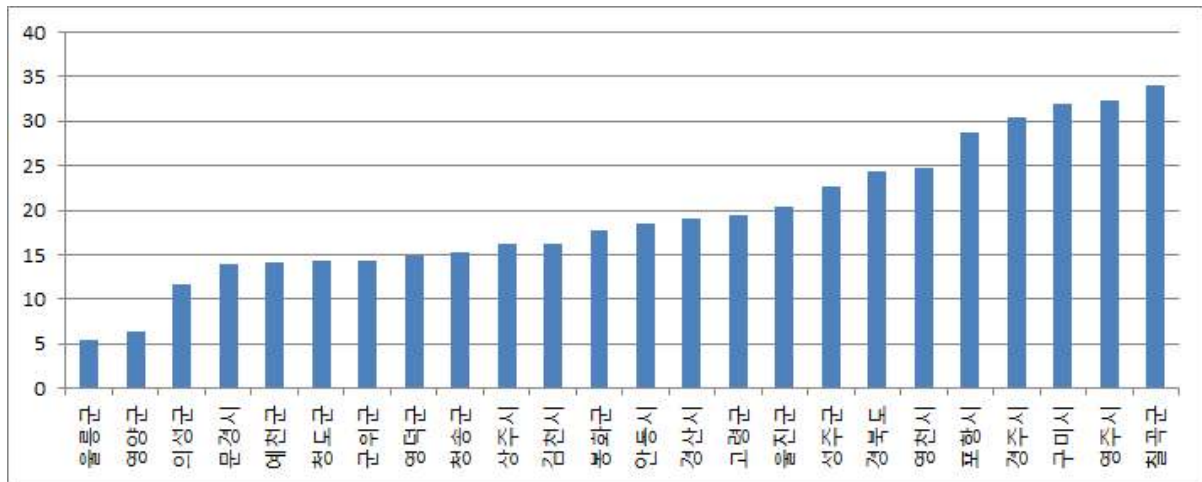
(단위 : %)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전반적 사회안전	1.1	17.2	56.7	21.1	3.8
국가안보	2.3	23.6	39.6	28.9	5.6
자연재해	1.9	22.6	46.1	25.9	3.5
정보보안	1.1	11.6	41.5	35.3	10.5
신종전염병	1.0	10.2	36.3	40.4	12.2

13. 야간보행 안전도

야간보행에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전체 인구의 24.4%

- 「야간보행에 두려운 곳이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24.4%
 -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5.5%로 가장 낮은 반면 칠곡군은 34.1%로 가장 높음
- 두려운 원인으로서는 「우범지역」 49.8%로 가장 높고 이어 「가로등이 없다」 38.1%, 「인적이 드물다」 9.7%로 나타남
 - 「가로등이 없다」 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성주군(67.3%), 가장 낮은 곳은 영덕군 22.9%의 순으로 나타남



【야간 보행에 두려운 곳이 있다】

(단위 : %)

구분	야간보행에 두려운 곳이 있다	원인			
		가로등이 없다	인적이 드물다	우범지역이다	기타
2014	24.4	38.1	9.7	49.8	2.4
남	24.5	38.0	9.2	50.4	2.4
여	24.1	38.6	12.0	47.0	2.4

14. 자신의 준법수준 및 국민들의 공공질서 준수 수준

평소 스스로의 준법수준에 대해 잘 지킨다는 비율은 75.5%

□ 평소 스스로의 준법수준에 대해 「잘 지킨다」는 비율은 75.5%로 나타남

- 준법수준은 성, 연령, 학력, 소득계층 등 인구계층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단위 : %)

구분	아주 잘지킨다	비교적 잘지킨다	보통이다	지키지 않는다
2014	23.9	51.6	23.6	0.9
남	23.8	52.3	23.0	0.9
여	24.3	48.4	26.4	0.9

□ 우리 국민들의 공공질서 수준

- 「차레지키기(승강장, 극장, 화장실 등)」는 응답자의 7.5%가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
- 「담배꽂초 버리기, 침뱉기」는 응답자의 20.9%가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
- 「횡단보도로 다니기 등」은 응답자의 20.9%가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
- 「운전자의 교통질서」는 응답자의 14.5%가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
- 「공공장소 금연」은 응답자의 19.4%가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
- 「휴대폰 사용, 크게 떠들」은 응답자의 22.9%가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

(단위 : %)

	매우 노력한다	약간 노력한다	보통이다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① 차레지키기	12.7	45.6	34.3	6.9	0.6
② 거리환경질서	11.6	31.7	35.9	17.9	3.0
③ 보행질서	8.9	35.0	42.5	12.6	1.1
④ 운전자 교통질서	8.6	31.6	45.2	13.4	1.2
⑤ 공공장소금연	13.6	28.8	38.2	16.9	2.5
⑥ 공공장소 정숙	9.9	26.6	40.6	19.6	3.3

15. 교통이용 수단과 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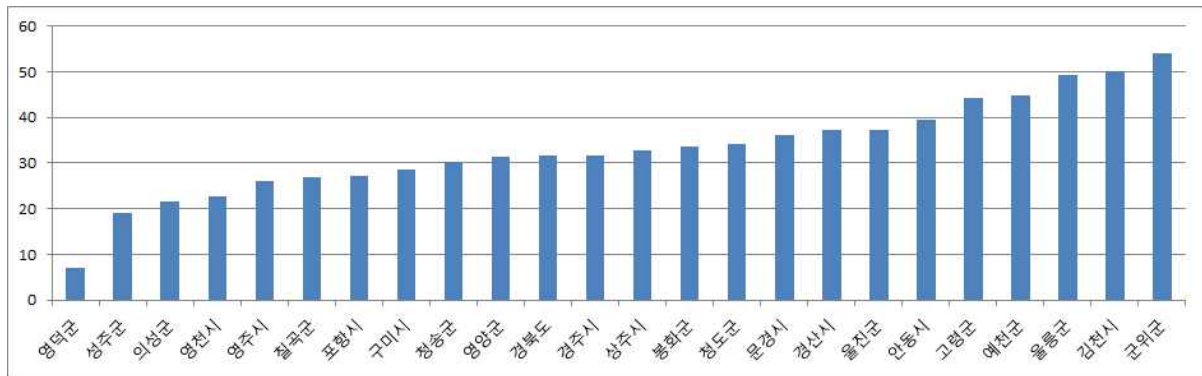
교통이용수단으로 승용/승합차 26.4%, 시내버스 25.9%, 자전거 4.3%

- 교통이용수단으로 「승용/승합차」 26.4%로 가장 많고 「시내버스」 25.9%, 「택시」 9.6%의 순
- 자전거는 4.3%로 나타났고, 시군별로는 상주시가 15.0%로 가장 높음

(단위 : %)

구분	자전거	오토바이, 화물차	시내버스	철도	택시	승용/승합차	고속/시외버스	통근(통학)버스	기타
2013	3.4	3.0	25.6	1.2	7.8	30.8	0.9	2.9	24.4
2014	4.3	6.1	25.9	2.2	9.6	26.4	2.1	2.2	21.2
29세이하	4.4	1.4	33.2	6.1	9.4	16.4	2.2	7.7	19
30-39세	3.4	2.1	17.0	2.3	15.1	40.2	1.3	2.8	15.9
40-49세	3.5	4.5	18.6	2.3	12.0	39.4	1.6	2.6	15.5
50-59세	4.5	8.2	21.8	1.8	8.5	32.7	1.9	2	18.6
60세이상	4.9	8.4	31.9	1.1	7.3	16.1	2.6	0.4	27.4

- 거주지역의 「교통안전시설 만족도」는 '만족한다' 31.7%, '불만족한다' 11.7%로 나타남
- 시·군별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영덕군이 7.2%로 가장 낮고 군위군은 54.0%로 가장 높음



【교통안전시설에 만족한다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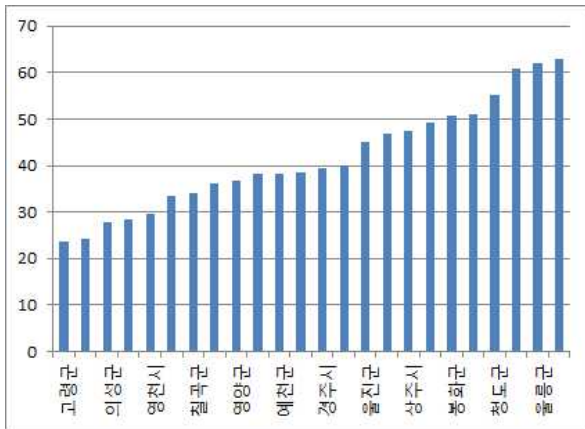
(단위 : %)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14	3.8	27.9	56.5	10.3	1.4
29세이하	3.0	25.3	58.3	11.5	1.8
30-39세	2.6	24.5	57.6	12.6	2.7
40-49세	3.3	27.4	55.7	12.0	1.6
50-59세	4.3	30.9	53.0	10.5	1.3
60세이상	4.4	28.5	57.8	8.4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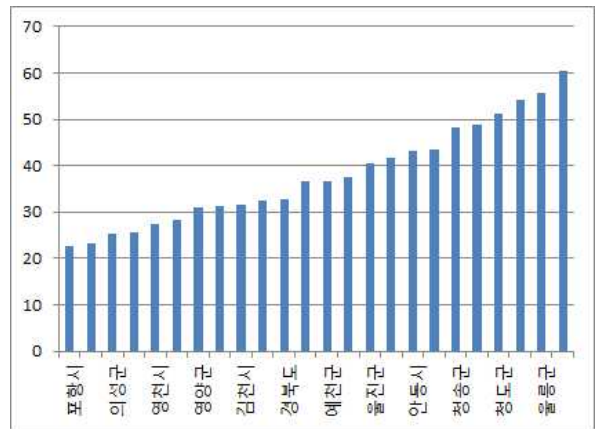
16. 국가기관의 법집행에 대한 신뢰

행정기관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36.0%, 사법기관 신뢰한다는 비율은 32.7%

- 「중앙·지방행정기관」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36.0%로 전년 36.4%에 비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29세이하가 26.9%로 가장 낮은 반면 60세이상은 46.1%로 가장 높음
 - 월평균 소득구간별로 1백만원 미만은 41.7%로 가장 높은 반면 5백만원 이상은 29.9%로 가장 낮음
- 「사법기관」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32.7%로 전년 33.6%에 비해 △0.9%p. 하락
 - 연령대별로 30~39세가 22.0%로 가장 낮은 반면 60세이상은 43.2%로 가장 높음
 - 월평균 소득구간별로 2백~3백만원이 29.0%로 가장 낮은 반면 1백만원 미만은 38.8%로 가장 높음



【행정기관】



【사법기관】

(단위 : %)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				
	매우 신뢰	신뢰	보통	신뢰 않음	전혀 신뢰 않음	매우 신뢰	신뢰	보통	신뢰 않음	전혀 신뢰 않음
2013	4.7	31.7	49.8	11.8	1.0	4.4	29.2	50.5	13.7	2.2
2014	4.6	31.4	45.7	15.7	2.7	3.9	28.8	45.7	18.1	3.6
남	4.4	30.9	45.5	16.4	2.8	3.7	28.2	45.4	18.9	3.8
여	5.3	33.2	46.7	12.8	2.0	4.7	31.0	46.8	14.8	2.7

17. 식품 안정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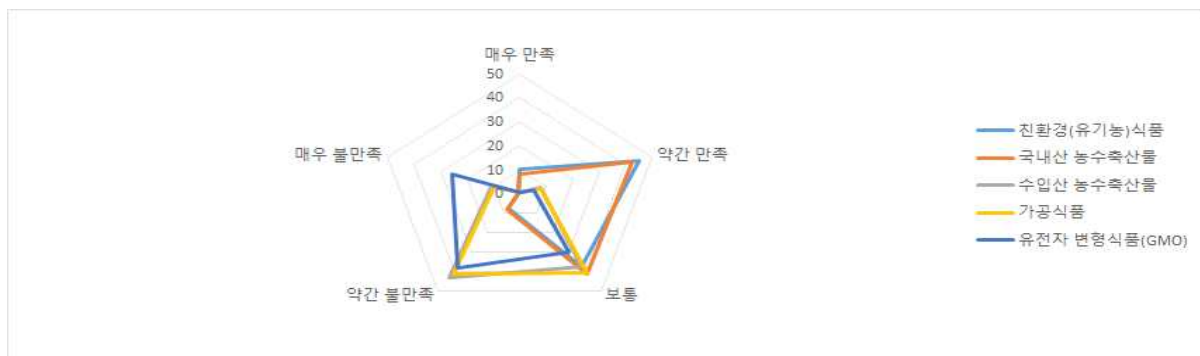
국내산 농산물은 45.2%, 수입산 농산물은 14.1%가 불안함을 느낌

- 「농산물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에서 국내산 농산물은 45.2%가 '불안하지 않다'고 대답한 반면 '불안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14.1%로 나타남
 - 이에 비해 수입산 농산물은 11.6%가 '불안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2.5%로 수입산 농산물의 농약오염에 대해 지역소비자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전혀불안하지 않다	별로불안하지 않다	보통	약간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
국내산 농산물	2014년	8.7	36.5	40.8	12.5	1.6
	남 자	8.4	35.9	41.2	12.9	1.6
	여 자	10.0	39.1	39.3	10.4	1.2
수입산 농산물	2014년	1.1	10.5	35.9	37.0	15.5
	남 자	1.1	10.3	35.5	37.4	15.8
	여 자	1.0	11.7	37.8	35.3	14.2

-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유기농식품 55.1%, 국내산 농축산물 50.6%로 높게 나타남
 - 이에 비해 수입산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은 8.6%, 유전자변형식품(GMO) 6.0% 등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단위 : %)

	매우 안전	약간 안전	보통	약간 불안	매우 불안
친환경(유기농)식품	10.1	45.0	37.3	7.1	0.6
국내산 농수축산물	8.2	42.4	40.9	7.8	0.8
수입산 농수축산물	0.7	7.9	37.2	43.1	11.1
가공식품	0.8	7.8	40.8	41.0	9.6
유전자 변형식품(GMO)	0.6	5.4	29.8	38.3	25.9

VI. 문화와 여가

18. 문화예술행사 경험, 정보입수경로, 만족도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인구비율은 43.3%

-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경험」 인구비율은 43.3%로 나타났고, '영화'가 38.2%로 가장 높고 이어 '박물관' 8.9%, '음악·연주회' 8.6%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29세이하는 79.9%로 나타난 반면 60세이상은 12.0%로 나타나 연령대별로 문화예술행사 향유율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관람한 적이 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율			
		음악, 연주회	영화	박물관	스포츠
2014	43.3	8.3	38.2	8.9	6.7
남	45.9	8.7	40.5	9.7	7.5
여	31.4	6.3	27.7	5.1	3.4

- 「문화예술행사 정보입수 경로」 로 '인터넷'이 46.1%로 가장 높았고, 이어 'TV' 20.4%, '입소문' 19.6%, '기타' 13.9%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29세이하는 '인터넷'이 65.5%로 가장 높은 반면, 60세 이상은 '입소문'이 36.3%로 가장 높음

구분	TV	인터넷	입소문	기타
2014	20.4	46.1	19.6	13.9
29세이하	12.3	65.5	15.2	7.0
30-39세	19.4	60.7	12.4	7.4
40-49세	21.0	48.4	16.4	14.2
50-59세	26.8	25.9	27.3	20.0
60세이상	25.3	9.8	36.3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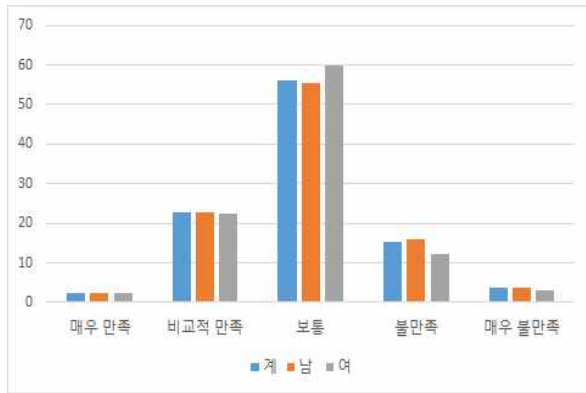
- 「문화예술행사 참여 만족도」 는 '만족한다'가 67.3%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29세이하는 64.4%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반면, 60세 이상은 72.7%로 가장 높음

구분	(단위 : %)				
	매우 만족	비교적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14	9.3	58.0	30.8	1.6	0.4
29세이하	8.0	56.4	33.8	1.5	0.3
30-39세	7.9	58.3	31.8	1.5	0.5
40-49세	8.6	60.1	29.5	1.6	0.2
50-59세	9.3	57.3	31.1	1.8	0.5
60세이상	16.0	56.7	25.6	1.1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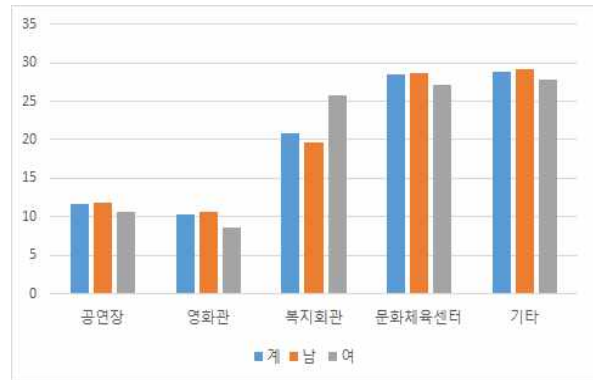
19. 문화예술시설 만족도 및 필요한 문화시설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시설로는 '문화체육센터', 「복지회관」의 순

- 지역의 「문화예술시설」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25.0%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한다'는 비율은 18.9%로 나타남
-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시설」로는 '문화·체육센터' 28.4%로 가장 높고 이어 '복지회관' 20.8%, '공연장' 11.6%, '영화관' 10.3%의 순으로 나타남
- 남자는 '문화체육센터'를 가장 많이 선호, 여자는 '문화체육센터'와 '복지회관'을 선호



【문화예술시설 만족도】



【필요 문화시설】

(단위 : %)

구분	거주지 문화예술시설 만족도					거주지 필요 문화예술시설				
	매우 만족	비교적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공연장	영화관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기타
2014	2.4	22.6	56.1	15.3	3.6	11.6	10.3	20.8	28.4	28.9
남	2.4	22.6	55.3	16.0	3.7	11.8	10.7	19.7	28.6	29.2
여	2.5	22.4	59.8	12.2	3.1	10.7	8.5	25.8	27.2	27.8

20. 지난 1년간 국내외 여행 경험

지난 1년간 국내여행 경험비율은 47.1%, 해외여행 경험 비율은 9.8%

- 지난 1년간 관광목적으로 「국내여행을 다녀온 적 있다」 는 비율은 47.1%
 - 성별로는 남자가 49.7%, 여자는 35.6%로 남자가 국내여행을 더 많이 다님
 - 연령별로는 30대가 67.5%로 가장 높았고, 40~49세 61.2%, 29세이하 56.5%의 순
 - 숙박여행은 평균 2.6회. 1인당 평균 숙박일수는 2.2일로 나타남
 - 당일여행은 평균 4.3회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회)

구분	국내여행 경험이 있다	숙박여행		당일여행 (평균횟수)
		평균횟수	1회당 평균 숙박일수	
2014	47.1	2.6	2.2	4.3
남	49.7	2.6	2.2	4.4
여	35.6	2.5	2.3	3.5
29세이하	56.5	2.7	2.3	4.0
30-39세	67.5	3.0	2.3	5.6
40-49세	61.2	2.7	2.2	4.9
50-59세	49.2	2.4	2.2	4.3
60세이상	30.6	2.1	2.3	2.9

- 지난 1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 있다」 는 비율은 9.8%

- 남자 10.6%, 여자 6.0%로 나타났고, 관광목적은 '관광' 70.9%, '업무' 14.0%의 순
-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지만 「향후 계획은 있다」 는 비율은 26.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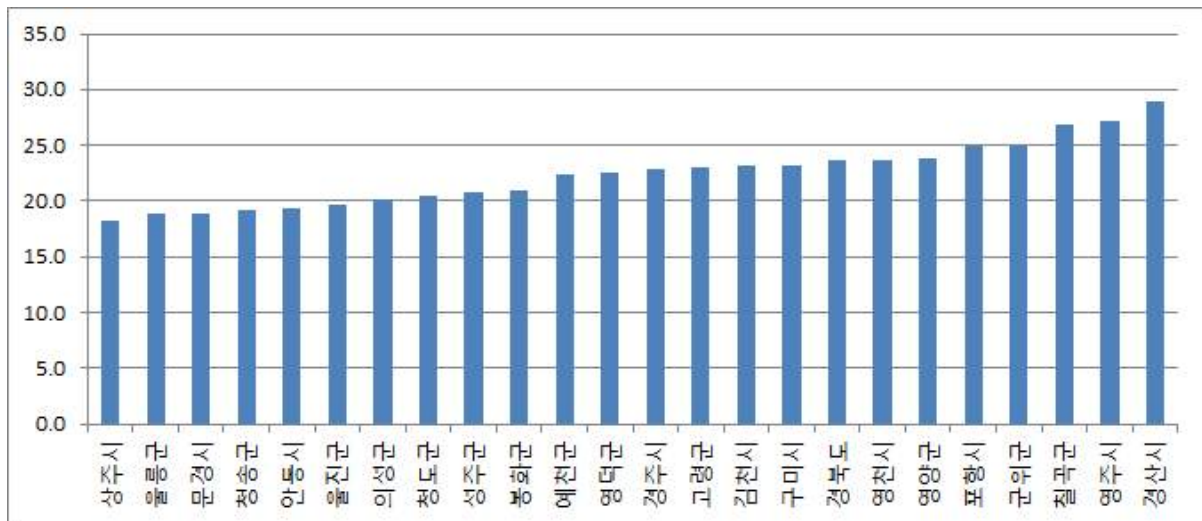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있다	여행목적				없지만 향후 계획은 있다
		관광	가사	업무	교육	
2014	9.8	70.9	11.3	14.0	3.8	26.7
남	10.6	70.5	11.4	14.5	3.7	29.0
여	6.0	73.8	10.7	10.5	5.1	17.1

21.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향후 선호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여행, 휴식, 사교관련의 순

- 앞으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길 경우 「여가활동」으로는 ‘여행’ 23.6%, ‘휴식’ 11.6%, ‘사교관련’ 10.0%의 순임
 - 남자의 경우 ‘여행’이 24.3%로 가장 높고 이어 ‘휴식’ 11.1%, ‘사교관련’ 9.7%의 순
 - 여자의 경우 ‘여행’ 20.5%, ‘휴식’ 14.1%, ‘사교관련’ 11.8%의 순
- 연령별 여가활동 선호
 - 20대는 ‘여행’ 22.9%, ‘문화예술관람’ 12.5%, ‘스포츠활동’ 10.2%의 순
 - 40대는 ‘여행’ 26.9%, ‘스포츠활동’ 10.6%, ‘문화예술관람’ 9.7%의 순
 - 60대이상은 ‘여행’ 19.8%, ‘휴식’ 17.5%, ‘사교관련’ 14.9%의 순



【 하고싶은 여가활동-여행 】

(단위 : %)

구분	여행	문화예술관람	스포츠 활동	휴식	사교관련	기타
2014	23.6	7.8	7.1	11.6	10.0	39.8
남	24.3	8.1	7.8	11.1	9.7	39.1
여	20.5	6.8	4.0	14.1	11.8	42.7
(연령별)						
29세이하	22.9	12.5	10.2	5.7	5.7	43.0
30-39세	25.9	11.7	10.5	7.6	5.6	38.6
40-49세	26.9	9.7	10.6	8.0	6.5	38.3
50-59세	26.6	7.5	7.9	10.4	9.8	37.7
60세이상	19.8	4.1	2.6	17.5	14.9	41.1

22. 인터넷 활용 및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용

인터넷 뱅킹 이용율은 32.9%, 가구당 통신비용은 3만원 미만이 가장 많아

□ 인터넷 활용

- 「인터넷 뱅킹, 폰 뱅킹 서비스 이용율」은 32.9%로 나타남
- 「문자메세지 이용율」은 63.9%이고, 남자 63.9%, 여자 42.9%로 나타남
- 「이메일 보유율」은 42.5%이고, 남자 45.4%, 여자 29.3%로 나타남
- 「홈페이지 보유율」은 21.1%이고, 남자 22.5%, 여자 15.1%로 나타남
- 「인터넷 동호회 가입」은 13.3%이고, 남자 14.5%, 여자 8.2%로 나타남
- 「SNS 사용」은 44.6%이고, 남자 47.3%, 여자 32.4%로 나타남

(단위 : %)

구분	인터넷뱅킹·폰 뱅킹서비스 이용율	문자메세지 이용율	개인 이메일 주소 및 홈페이지 보유			
			E-mail	홈페이지	인터넷 동호회 가입	SNS(페이스 북, 카카오톡, 트위터 등)
2012	34.8	61.2	44.3	23.3	12.5	35.3
2014	32.9	60.1	42.5	21.1	13.3	44.6
남	35.3	63.9	45.4	22.5	14.5	47.3
여	22.5	42.9	29.3	15.1	8.2	32.4
(연령별)						
29세이하	50.9	93.1	90.7	52.7	26.6	88.8
30-39세	73.3	94.6	87.8	47.9	32.4	84.9
40-49세	59.6	91.5	69.7	30.2	21.5	72.0
50-59세	29.2	72.9	33.8	14.1	9.6	43.6
60세이상	4.7	18.8	5.7	2.5	1.6	6.8

□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용

-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용」은 3만원미만이 26.0%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20만원미만이 23.5%, 5~10만원미만 20.5%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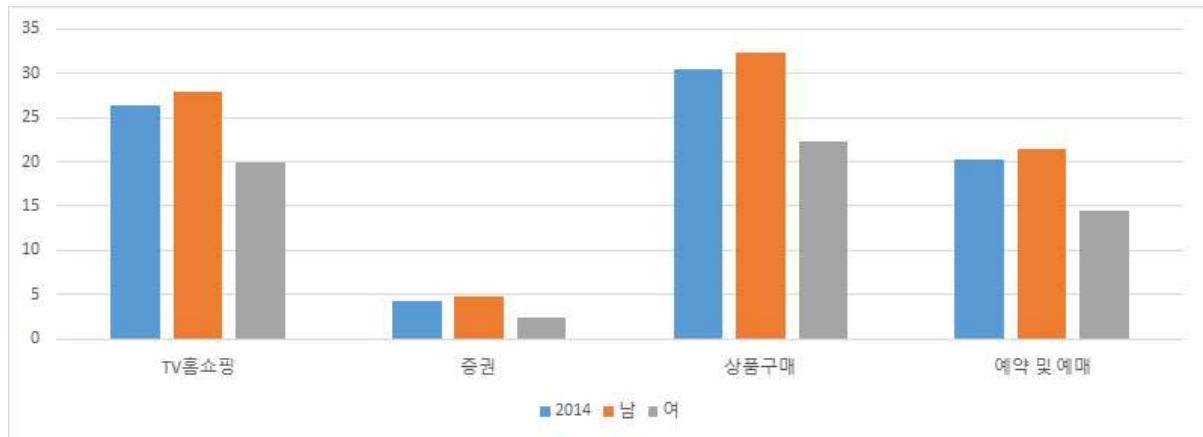
구분	3만원미만	3~5만원미만	5~10만원미만	10~20만원미만	20만원이상
2012	20.8	13.7	20.7	28.0	16.7
2014	26.0	12.9	20.5	23.5	17.0
1백만원미만	51.6	20.2	18.9	7.2	2.1
1백~2백만원미만	16.7	16.0	31.3	26.0	10.0
2백~3백만원미만	10.1	8.8	23.6	35.6	21.9
3백~4백만원미만	7.3	3.6	15.9	37.5	35.7
4백~5백만원미만	8.2	3.5	13.3	36.4	38.6
5백만원이상	7.0	2.6	7.1	32.5	50.9

23.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 을 통한 전자상거래서비스 활용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30~39세가 이용율이 가장 높음

□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한 전자상거래 이용율

- 「TV·홈쇼핑」 이용율은 26.1% : 30~39세가 55.0%로 가장 높음
- 「증권」 거래 이용율은 4.3% : 30~39세가 9.4%로 가장 높음
- 「상품구매」 이용율은 30.5% : 30~39세가 68.5%로 가장 높음
- 「예약 및 예매」 이용율은 20.2% : 30~39세가 49.7%로 가장 높음



【 전자상거래 이용율 】

(단위 : %)

구분	TV홈쇼핑	증권	상품구매	예약 및 예매
2014	26.4	4.3	30.5	20.2
29세이하	29.2	3.3	54.2	41.6
30-39세	55.6	9.4	68.5	49.7
40-49세	48.0	8.9	52.3	34.2
50-59세	29.5	4.8	25.7	12.6
60세이상	5.2	0.8	4.0	1.8
1백만원미만	6.9	0.8	8.3	4.7
1백~2백만원미만	21.3	1.9	22.9	12.6
2백~3백만원미만	33.2	4.5	37.1	23.1
3백~4백만원미만	38.8	6.3	45.0	30.9
4백~5백만원미만	43.4	9.1	52.5	37.1
5백만원이상	46.9	12.4	57.2	45.4

VII. 영양군 특성항목

24. 군민 희망사항 반영도

군민들은 영양군이 군민의 희망사항을 군정에 '잘 반영하고 있다' 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양군이 군민들의 희망사항을 '잘 반영하고 있다'가 48.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그저 그렇다' 37.7%, '아주 잘 반영하고 있다' 11.1% 순
- 연령별 군민 희망사항 반영도
 - 29세 이하는 '그저 그렇다'가 60.4%로 가장 높은 반면, 29세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잘 반영하고 있다'가 가장 높아 대비를 이룸

【 군민 희망사항 반영도 】

구분	아주 잘 반영	잘 반영	그저 그렇다	잘 반영되지 않음	전혀 반영되지 않음
2014	11.1	48.6	37.7	2.3	0.2
남자	10.4	50.6	36.5	2.3	0.3
여자	13.7	41.4	42.4	2.6	0.0
(연령별)					
29세 이하	12.0	22.1	60.4	5.5	0.0
30~39세	12.4	49.8	34.3	0.0	3.5
40~49세	4.9	54.0	37.0	3.1	1.0
50~59세	7.3	51.5	36.0	5.3	0.0
60세 이상	13.9	47.5	37.6	1.0	0.0

25. 영양의 생활환경 만족도

영양군의 생활환경 만족도는 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영양군의 생활환경 만족도는 '약간 좋다' 51.6%, '매우 좋다' 36.2%, '그저 그렇다' 10.2% 순으로 군민들이 영양에서 살기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매우좋다	약간좋다	그저 그렇다	약간나쁘다	매우나 쁘다
2014	36.2	51.6	10.2	0.8	1.2
남	36.9	49.6	11.1	1.0	1.4
여	33.7	58.6	7.0	0.0	0.7
(연령별)					
29세이하	12.0	34.9	26.8	0.0	26.3
30~39세	24.6	57.4	14.6	0.0	3.5
40~49세	22.1	56.7	19.2	0.0	2.0
50~59세	31.7	54.0	14.3	0.0	0.0
60세이상	42.9	50.2	5.6	1.3	0.0
(경제활동별)					
취업자	33.3	53.5	12.2	0.3	0.7
실업·비경제활동	40.4	48.8	7.3	1.4	2.0

- 생활환경 만족도 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청결한 생활환경' 26.5%, '성숙한 군민의식' 23.8%, '편리한 교통체계' 19% 순
-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편리한 교통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았고, 30대와 60대 이상은 '성숙한 군민의식', 40대는 '문화 공간 확충', 50대는 '청결한 생활환경' 확립을 생활환경 만족도 개선을 위한 선행사항으로 봄

구분	청결한 생활환경	우수한 교육·관광 시설	취업난 해소	문화 공간 확충	편리한 교통체계	성숙한 군민의식	치안·범죄 예방·안전	기타
2014	26.5	2.3	9.2	14.7	19.0	23.8	2.2	2.4
남	28.8	2.7	9.2	12.1	17.1	24.8	2.5	2.8
여	11.3	0.0	8.8	31.2	31.0	17.6	0.0	0.0
(연령별)								
29세이하	0.0	16.2	0.0	24.9	31.8	27.1	0.0	0.0
30~39세	22.2	0.0	0.0	0.0	29.3	48.5	0.0	0.0
40~49세	23.1	0.0	21.9	23.4	11.1	20.4	0.0	0.0
50~59세	55.9	0.0	4.3	6.0	11.4	18.0	4.5	0.0
60세이상	17.0	0.0	10.4	13.8	23.0	25.6	3.0	7.3

26. 출산율 증가 방안

출산율 증가를 위해 ‘출산에 대한 개인인식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초고령화 사회인 영양군의 출산율 증대 방안으로는 ‘출산에 대한 개인인식 변화’ 39%, ‘보육료 지원’ 25.3%, ‘의료비 지원(출산관련 진료비, 불임 시술비 등)’ 14.9% 순
- 연령별로 보면 2~30대에서는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출산율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40대 이상부터는 개인 인식 변화를 통하여 출산율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청년층과 중장년층·노년층 간 인식의 차이를 엿볼 수 있음
 - 29세 이하에서는 ‘보육료 지원’ 23.2%, ‘의료비 지원’ 20.5% 순
 - 30대에서는 ‘보육료 지원’ 30%, ‘출산에 대한 개인인식 변화’ 27.2% 순
 - 40대 이상에서는 ‘출산에 대한 개인인식 변화’, ‘보육료 지원’ 순

구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증대	육아휴직 활성화	여성 근무여건 개선	공교육역할 증대 (사교육비 감소)	출산에 대한 개인인식 변화(양육 부담감 등)	의료비 지원 (출산관련 진료비 등)	이동에 대한 범죄율 감소를 위한 치안 강화	기타
2014	25.3	8.1	1.5	2.6	5.2	39.0	14.9	2.2	1.3
남	26.1	7.2	1.8	2.8	4.3	39.1	14.7	2.8	1.1
여	22.4	11.2	0.0	1.8	8.4	38.7	15.6	0.0	1.9
(연령별)									
29세 이하	23.2	8.8	0.0	0.0	10.3	19.4	20.5	0.0	17.8
30~39세	30.0	7.3	0.0	0.0	24.9	27.2	0.0	0.0	10.6
40~49세	24.8	10.7	1.1	4.4	7.3	40.6	9.5	1.5	0.0
50~59세	18.3	11.4	4.3	4.1	7.4	37.3	15.2	1.2	0.8
60세 이상	28.0	6.0	0.6	2.0	2.4	41.6	16.0	3.1	0.2

27. 노인복지정책 방안(65세 이상만 응답)

65세 이상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문제’로 나타남

- 영양군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문제’ 55.7%, ‘건강문제’ 19%, ‘소일거리 없음’ 12.7% 순으로 나타남

구분	경제적 문제	소일거리 없음	건강문제	외로움 · 소외감	가족으로부터 푸대접	노인복지시설 부족	기타
2014	55.7	12.7	19.0	5.5	0.0	5.5	1.6
남	55.7	12.5	18.8	3.3	0.0	7.3	2.3
여	55.7	13.2	19.4	10.4	0.0	1.3	0.0

-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양군이 우선 추진해야 할 일로는 ‘노인일자리 확대’ 52.7%, ‘노인의료시설 확충’ 21.1%, ‘노인복지생활시설 확충’ 17.4% 순으로 나타나 노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확대’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복지생활시설 확충	노인여가문화시설 확충	노인의료시설 확충	기타
2014	52.7	17.4	7.2	21.1	1.6
남	52.2	17.5	9.0	19.0	2.3
여	53.9	17.3	3.0	25.9	0.0